

빅데이터 시대의 공동선



안광복

서울 중동고 철학교사.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철학으로 돌파하라』,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등 20여 권의 철학 교양서를 쓴 스테디셀러 작가이다.

일은 왜 언제나 업무시간만큼 늘어날까?

“2030년경이 되면 평균 노동 시간이 주 15시간 정도로 줄 것이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1930년에 발표한 에세이 「우리 후손들의 경제적 가능성」에 나오는 주장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의 생산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0년 미국의 우유 생산량은 이미 1970년대의 두 배에 달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밀의 수확량은 두 배, 토마토는 세 배가 늘었다.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공산품의 생산성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다. 지금은 아예 AI가 사람의 노동을 빠르게 대신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은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을 만큼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 100년전, 케인즈의 예상했던 하루 3시간만 일해도 되는 세상이 비로소 실현되는 듯싶다.

하지만 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일이 곧 소득인 까닭이다. 기계가 내 일자리를 꿰찬다면 나는 어찌 생계를 꾸려간단 말인가. 지난 100년 동안에도 케인즈의 바람과 달리 노동 시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내 늘려 간 탓이다.

“일은 언제나 업무시간만큼 늘어난다.”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이라 불리는 일터에서의 모습이다. 일감이 하루 세 시간 노동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해도, 사람들은 8시간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든 일거리를 만들어 낸다. 일터에서 가짜 노동이 넘쳐나는 이유다. 이는 열심히는 하지만 왜 하는지는 알기 힘든 쓸데없는 노동을 일컫는 말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를 위한 회의, 서류를 위한 서류들을 떠올려 보라.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일자리를 늘리려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할까? 일에서 놓여나 여가를 넉넉하게 누리는 삶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문명의 생산성이 사회 전체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높아졌다면, 이제 우리는 노동의 시대를 넘어 여가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케인즈가 이미 100년 전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림자 노동에도 대가를 지불하라

하지만 오랫동안 일 중심으로 꾸려져 온 인류 문명을 여가 중심으로 바꾸기란 절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일에서 놓여나려면 사람들에게 생활에 가능할 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본소득제가 등장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

도 하다. 그러나 노동에 익숙한 문화는 모든 이에게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안긴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반발을 부르곤 한다.

게다가 도미니크 슈나퍼에 따르면,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며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노동을 통해 보람을 찾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자기 아이를다른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보육교사가 적지 않다고 한다.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고 자신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일이 주는 의미는 소득을 넘어선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게 된 힘든 노동을 다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듯싶다. 많은 공장에서 단순노동 일자리를 매울 일손을 못 구해 애를 먹는 현실을 보라. 사람들은 대부분 충분히 가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원한다. 그런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올리히 벡은 ‘시민 노동’이라는 해답을 내놓는다.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제적 대가를 주지 않았던 활동’을 뜻한다. 그림자 노동이라 불리는 육아나 가사 등등이 여기에 해당하겠다. 예술이나 문화, 정치 등등에서도 다양한 시민 노동이 펼쳐지곤 한다. SNS나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창작물들, 다양한 댓글들은 삶과 문화를 풍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이라 할 만하다. 올리히 벡은 이런 노력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거대 IT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밀천 삼아 굴러간다. 사람들이 늘 하는 검색 활동,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은 옳오하게 빅데이터로 쌓여가지 않던가. 내가 웹상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옳오하게 빅데이터로 쌓여간다.

우리는 공짜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IT 기업들이 이용자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얻어내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활동들은 실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시민 노동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

시민노동, 디지털 노예화를 막을 대안

시민노동은 경제적 보상과 수입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디지털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탓이다. 검색 알고리즘 등은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듯싶다. 추천 콘텐츠 목록에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 뜨지 않던가. 그럴수록 나에게는 점점 내가 싫어하는 것, 알아야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은 콘텐츠를 접할 기회는 사라진다. 게다가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기업의 이익에 걸맞은 콘텐츠만 보여 주며, 우리의 욕망과 생각을 토끼몰이 하듯 끌고가기도 한다. 그래서 NGO 운동이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도 시민 수당을 지급하라는 올리히 백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유럽을 떠도는 신(新)나치주의를 막을 수 없다면, 이에 맞서는 정치적 활동들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은 자기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사회에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고민은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끌어모아 돈을 챙기는 콘텐츠 운용자들을 떠올려 보라.

이들의 폐해를 막는 데도 시민 수당은 요긴하다. 올곧은 주장은 좀처럼 돈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옳은 소리보다 듣고 싶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탓이다. 그렇다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콘텐츠와 생각에 마땅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흥미보다 올곧음이라는 잣대에 따라 만들어지는 내용물들이 훨씬 많아질 터다.

애벌레의 실수에 빠지지 말라

올리히 백은 문명의 발전을 ‘1차 근대’와 ‘2차 근대’로 나누어 설명한다. 1차 근대는 인류 문명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던 시기다. 반면, 2차 근대는 1차 근대가 낳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다. 1차 근대는 공해와 기후 위기, 빈부 격차같이 사회의 안정과 지속을 어렵게 하는 난제들을 낳았다. 우리는 이를 풀어나가야 2차 근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1차 근대 사회에서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2차 근대 사회에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맞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물자 부족에서 오는 절대빈곤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산 과잉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지는 세상이다. 이제는 물자나 자원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가며 공동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올리히 백은 ‘애벌레의 실수’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나비로 거듭날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망가지는 고치에 매달리는 잘못에 빠지지 말라는 충고다.

이제 노동의 종말은 정해진 미래에 가깝다. ‘주 4일 노동’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키는 데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책은 가치 있는 활동에 대가를 주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인류 문명은 이를 감당할 만한 생산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